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6호

I 국산 배사과 대만 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II '18년도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실시

III 포도 '샤인머스캣' 수출 활성화 방안

IV 손 세척 대비 1/6 수준
'팽이 버섯 고깔 세척 장치' 개발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6호 2018. 11. 23(금)

‘18.10.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77.0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0.7% 1,026백만불	0.2% 4,699백만불	3.3% 1,970백만불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 채소종자, 백합(화훼류), 장미	+ 음료, 라면, 맥주 - 궤련, 커피조제품, 설탕	+ 참치, 김, 고등어 - 삼치, 오징어, 바지락

국가별

* 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 (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홍콩 351백만불(12.3%) ▶ 대형마트 연계 한국 소스류 판촉(계속)	중국 1,233백만불(11.8%) ▶ BHG 연계 유제품(신선우유 등) 판촉(11.7~12.16) ▶ 웨이신 등 연계 샤인머스켓 포도 판촉(11.1~11.30)	ASEAN 1,450백만불(9.3%) ▶ 베트남 Kofco 연계 가공식품 판촉(5.25~11.30) ▶ 인니 Lazada 연계 신선식품 판촉(4.19~11.30)	미국 871백만불(5.5%) ▶ 아시안마켓 연계 한국 차류 판촉(계속) ▶ 푸드트럭 연계 소비자체험홍보 추진(계속)	일본 1,741백만불(1.7%) ▶ YAHOO JAPAN연계 온라인판촉 추진(계속)	EU 496백만불(△8.3%) ▶ 프랑스 로플레어 연계 장류 판촉(6.14~계속) ▶ 네덜란드 Oriental 연계 가공식품 판촉(계속)
인삼류(63%), 딸기(3%) 설탕(△21%), 유자차(△11%)	인삼류(51%), 라면(10%) 설탕(△13%), 김(△11%)	음료(39%), 참치(9%) 궤련(△29%), 커피조제품(△5%)	김(13%), 음료(9%) 궤련(△41%), 굴(△8%)	참치(11%), 파프리카(9%) 제3맥주(△30%), 전복(△8%)	김(21%), 음료(7%) 커피조제품(△41%), 참치(△14%)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10. 31



- 배(신선)

- ◇ 對미국 수출은 자국 내 중국계 마켓 중심 타민족 소비자 선호 확대 및 추수감사절 대비 연말 선물용 신고배 수출 증가에 따라 상승세
- ◇ 對베트남 수출은 한국산 고품질 배 인지도 상승에 따라 수요 증가 지속

55,514천불(20.1%)

▶ 주요 수출국 : 미국(22,259천불, 15.3% ↑), 베트남(12,740, 80.5 ↑)

- 조제분유

- ◇ 對중국 수출은 연초 자국 내 신조제분유법 시행 대응에 따라 순항
- ◇ 對베트남 수출은 프리미엄 조제분유 인기에 따라 증가세 지속



▶ 주요 수출국 : 중국(60,745천불, 19.7% ↑), 베트남(7,127, 9.3 ↑)

76,184천불(18.5%)



- 고등어

- ◇ 어획량 증가 및 서아프리카 지역 중저가형 고등어 대폭 증가

43,221천불(199.1%)

▶ 주요 수출국 : 나이지리아(5,398천불, 200.1% ↑), 중국(4,694, 149.0 ↑), 가나(4,324, 583.7 ↑)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식물검역 이슈



국산 배사과 대만 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대만으로 수출되는 배와 사과는 '06년 이전에는 검역 요건 없이 수출되었으나, 대만이 복숭아심식나방 등에 대한 검역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06년부터 선과장과 농가에 대한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어 왔었다. 이후 양국검역관이 격년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16년도에 합의함에 따라 금년에는 한국검역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총 10개 시·군 11개 선과장과 26개소 과수원에 대해 9~10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대만측에 통보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검역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복숭아심식나방이 1회 검출 시 해당 과일 수출중단, 2회 검출 시 배, 사과, 복숭아 모두 수출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5차 한-중 식물검역회의 실시

검역본부는 '18.10.17일 중국 북경 해관총서(중국 세관)에서 양측 대표단 각 6명씩 참석한 가운데 한-중 식물검역회의를 실시하였다. 한중 양국은 '09년부터 격년으로 식물검역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래 이번이 5번째 식물검역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파프리카·참외·단감에 대한 위험분석 진행상황 촉구,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중국산 LMO 유채종자 및 붉은불개미 유입방지를 위한 방안 협의와 한국산 춘란 및 조경수에 대한 검역요건 문의, 표고버섯 신규수입허용요청, 한국산 포도 항공 화물 수출 검사량 축소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8년도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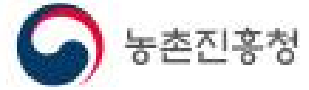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은 '05년 ASEAN+3 농림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어 '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올해에는 '18.10.15 ~ 10.25일 11일간 김천(검역본부 소재)에서 ASEAN 국가 등 개도국 9개국으로부터 식물검역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해충 DNA 바코딩 실습과 부산항에서의 식물검역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 대상 설문조사결과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포도 '샤인머스켓' 수출 활성화 방안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은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당도가 높고 저장 기간도 길어 주력 품종인 '켄벨'의 대체 품목으로 육성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해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포도(샤인머스켓) 수출활성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베트남, 홍콩 등 주요 수출국별 수출 여건과 확대 방안, 수출 사례, 고품질 생산 기술, 선도 유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에선 '샤인머스켓' 품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저장·유통 기간을 2개월~3개월 연장할 수 있는 유향패드와 흡착제, 포장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손 세척 대비 1/6 수준 '팽이 버섯 고깔 세척 장치' 개발



(가운데) 팽이버섯에 사용되는 고깔
(아래) 고깔 세척장치 모습

팽이 버섯은 영양이 풍부하고 식감이 독특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2018년 팽이버섯 수출액(1월~10월): 1,5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4.7% 증)

팽이 버섯을 재배할 때엔 대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버섯의 벌어짐을 막기 위해 고깔을 씌우는데, 고깔의 위생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기계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발한 고깔 세척 장치는 고깔을 투입구부터 배출구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동시에 고깔 양면을 고압으로 세척·살균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2만 개의 고깔을 손으로 씻는 경우 12명이 8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이 장치를 이용하면 2명이 8.5시간(1/6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세척 장치 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약 2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다. 이번에 개발한 세척 장치는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팽이 버섯 생산 농가에 보급하여 팽이 버섯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